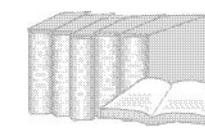


# 북

Books



## 미 쇠고기 치명적 위험 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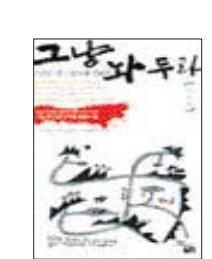
새책



동물 보호가인 저자는 각종 군에 오염된 미국산 육류는 정육업계와 정부, 관료들의 부적절한 커넥션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사진은 최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문화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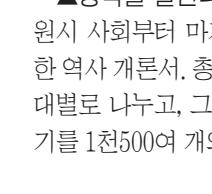
▲지적이 만난 레닌-레닌에게 무엇을 배울 것인가? =세계적인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이 레닌에 대해 말했다. 지젝은 독일 고전 철학의 변증 법적 방법론·정신분석학 이론 등을 토대로 21세기형 레닌을 재창조했다. 1917년 2월 혁명 직후부터 10월 혁명이 성공하기까지 레닌이 쓴 핵심 문건들을 함께 수록했다. <교양인·3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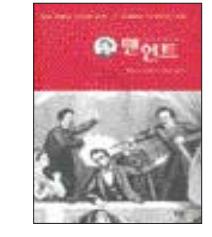
▲상상에 숨을 불어넣다-애니메이션 거장 15인의 미쟝센(연출기법) 해부=월래스와 그로밋으로 유명한 니파크 등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거장 15명의 인터뷰 모음집. 거장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느껴볼 수 있으며 제작과정, 제작기법 등도 소개됐다. <내비장책·1만3천원>



▲그냥 놔두자 쓰라린 백년 소원 이것이다=사회적 논란거리로 부상한 한반도 대운하 추진을 반대하는 시인 203명의 공동시집. 고은, 정희성, 이성부, 강은교, 노향립, 유안진 시인 등이 작품을 실었고, 이철수·남궁산 등의 판화와 여태명 등 서예작품도 함께 실렸다. <화남·1만원>



▲당신 먼저, 원더풀!=성공학 강사이자 명강사로 알려진 서필환의 강의 중에 미처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담았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경험을 비롯해 다양한 성공 사례들이 소개됐다. <호이데북스·1만2천원>



▲중국을 말하다 1~15권=중국의 저명한 사학자 12명이 중국의 월시 사회부터 마지막 왕조인 청나라가 멸망하기까지 과정을 서술한 역사 개론서. 총 15권으로 구성됐으며 중국 역사의 흥망성쇠를 시대별로 나누고, 그 시대의 주요 역사적 사건 및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1천500여 개의 표제어로 엮었다. <신문문화사·각권 1만6천원>



▲맥퍼트-링컨 대통령 암살범 추적, 그 저질했던 12일간의 기록=변호사이자 링컨 연구가인 제임스 스완슨이 당대의 미남 배우이자 암살범이었던 존 월크스 부스가 링컨 대통령을 쏜 뒤 도주하다 총에 맞아 숨을 거두기까지 12일간의 기록을 담았다. <행간·1만4천500원>



▲아주 사소한, 그러나 소중한='느끼게 산다는 것의 의미'의 저자인 프랑스 철학자 피에르 상소의 유고집. 지난 2005년 저자가 집필 중 사망한 뒤 앙리 토로그 등 그의 제자들이 완성해 출간했다. 노 철학자가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서 깨닫게 된 삶의 진리가 담겨있다. <현대문학·1만1천500원>



▲꿈 너머 꿈을 꾸다=저자 박남일이 조선 최고의 기획가였던 정도전의 출생부터 이방원의 칼에 목숨을 잊기까지 일생을 살렸다. 한나라를 세우고도 반역자라는 오명을 썼던 '불우한 영웅'에 대한 기록과 함께 새로운 왕조 창업이라는 꿈을 실현시킨 '기획가 정도전'에 초점을 맞춰 기록했다. <서해문집·1만1천900원>



### 물리로 이루어진 세상

#### 일상 속 물리학 텁텁

고등학생들이 싫어하는 과목 중 하나는 물리다. 이해하기 어려운 무수한 법칙과 알 수 없는 공식들을 외워야 하기 때문이다. 막계만 느껴지는 물리는 우리 생활 속 곳곳에 숨겨져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난다. '물리로 이루어진 세상'은 물리학 원리를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물리학의 원리를 설명하는 과학교양서다.

프랑스 피에르&마리 퀴리대학 교수인 장미셸 코르티가 화재 때 물이 어떤 구실을 하는지, 눈송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물멩이가 어떻게 물 위에서 뛰어 오르는지 등 가볍고 흥미로운 내용부터 테리히트즈과 나 음향 솔리톤 같은 최신 연구 성과까지 소개했다.

<에코리브르·1만6천500원>  
/이은미기자 emlee@



### 도살장

게일 A. 아이스니츠 지음 박산호 옮김

